

# 화정아이파크 붕괴 피해보상 마무리 수순

### 현대산업개발, 상가 87곳 중 80곳 보상 완료...7곳 공탁 추진 미합의 상가 측 "안전 대책 먼저"...현산 "더 미룰수 없어 선택"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주변 상가 피해 보상 절차를 법원 공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화정 아이파크 인근 7개 상가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탁이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법적 문

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지 않는 등 조건에 한해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돈을 갚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인근 상가 87곳에 대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했다. 사고 직후 45-69일간 사고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되면서 가게 운영을 못해 발생한 매출액, 인건비, 유지비 등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다.

87곳중 80곳의 상가는 보상합의를 진행했지만 11일 현재까지 상가 7곳(6명)이 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8월 피해 보상 미합의의 상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공탁을 위한 법적·행정적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및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에 대한 주변 상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이 대책을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의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합의하고 나면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상가가 입고 있는 추가 피해에 침묵할 것이다. 상인들에게 '대기업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이미지를 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가 인·허가정인 서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공적으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이 있는데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별도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보상 합의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 절차에 돌입했다. 공탁 금액은 바뀔 수 없고 애초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피해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인들이 합의한다면 언제든 법적 절차를 멈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을 건설하던 도중 23-38층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제1회 북구청청배 청년아이디어 경진대회가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청년 창업자들이 우수공예 기업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성금 6억 돌파

### 11일 오전 9시까지 8389건 기부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의 모금액이 6억원을 돌파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모금 75일만인 이날 오전 9시까지 8389건의 기부로 6억 57만3500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참여 건수는 단체나 모임 이름으로 참여한 경우가 포함돼 실제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모임은 78주년 광복절을 3일 앞둔 지난달 12일 당시 모금액 (5억 3000여만원) 중 1차분으로 피해생존자·유족 등 원고 4명에게 각 1억원씩 총 4

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내년 6월까지 목표 모금액 10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모금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제3차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모임이다.

광주에서는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차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공탁관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를 한 상태다.

/장윤영 기자 zzang@

## '강진' 모로코 총회 참석 광주·전남 대표단 무사 귀국

1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GNN)에 참가한 광주·전남 대표단이 무사히 귀국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열린 GNN에 참석한 광주·전남 대표단이 이날 오전 모로코 마라케시 메나라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대표단은 광주시 공무원 4명, 화순군 공무원 3명, 담양군 공무원 3명, 전남대 연구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GNN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7박 10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리 공룡화석지 내 익룡발자국 화석의 지질학적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현황 등을 우수사례로 발표하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GNN의 폐막식이 예정된 지난 9일 오전 7시 10분께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6.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10일 기준 모로코 내무부 잠정 집계 결과 4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대표단은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대표단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날인 8일까지 그라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방문, 위원회·이사회 회의의 참석, 학회 홍보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GNN에서 지난 2018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됐고 지난 2월 첫 재인증에 성공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홍보하고, 화순 서유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 동구, 매력적인 도시 경관 만든다

###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적용...디자인·옥상 정원 등 특색 설계 권장

광주시 동구가 특색 있는 도시 경관 조성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광주시 동구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시 세 가지 권장사항을 공사장 주변 보도블록 교체 등 골목길 가로경관 개선 노력이 포함돼 있다.

옥상과 건물 전면부 등에 법적 조정면적의 5%

이내로 녹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주변도로에 초화류, 띠 녹지, 화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다.

건축 설계 시 특색있는 외관 디자인과 마감재를 활용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시가지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 이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무등산 일대 등이 해당되며, 시가지 경관지구

는 총장로·금남로 등 상업지역 등이다.

또 동구에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지어지는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동구는 관계 법령과 기준만 검토해 건축허가를 내려주다 보니 되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들어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춘 건물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라는 한계가 있어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경관심의위 등 각종 심의에서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 환자맞춤별 치료를 통하여 회복과 통증완화를 돕습니다. ”

일반  
요양

중풍  
재활

수술후  
재활

의학·한의학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을 통해 침치료, 부항, 침약 등의 한방 치료를 제공하여 회복과 증상완화를 돕습니다.

질환에 맞는 치료 제공

중추신경계 치료와 근골격계 추나 치료, 통증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기능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를 병원 1층에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 공유

환우분의 곤항 및 일상생활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신안동 2-3) 062)720-2000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90816-광-388919